

공수처,尹영장 주중 집행할 듯...경찰력·장비 규모 등 구체화

한남동 관저내 체포계획 위주 검토 경호처 간부들 조사 일정 등도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이후 주말과 휴일 없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휴일인 12일에도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수사팀 대다수는 출근해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몇새째를 맞았지만, 아직 영장 재집행에 나서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찰력·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 집회시위 인파가 모여든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 준비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중에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경찰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으로 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 불응 등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주가 영장 집행의 적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표면적으로는 경호처 간부에 대한 신병확보나 조사 출석 일정이 집행 시점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경호처 지휘부 상황 등에 따른 가능성과 전략을 포함해 다양한 체포 시나리오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진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고려하면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해서 재집행을 시도할 경우 장기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주중 영장 집행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출석 여부와 별개로 경찰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뒤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계획 등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오는 14일 현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연합뉴스

尹측 변호인단,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

수사팀 검사·수사관 접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운·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을 접견했다.

선임계가 제출된 변호사는 윤 변호사 등 모두 4명이라고 공수처는 전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고,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한가의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8일에도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목적으로 방문해 수사팀 면담을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거절해 불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엑스 캡처)

생포 북한군 2명 '전투중 상당수 병력 손실' 진술

국정원, "우크라이나 정보 지속 공유"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인이 전투 중 '상당한 병력 손실'을 증명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공개한 데 대해 확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다친 채 붙잡혔으며 현재 생명은 지장이 없는 상태다.

생포된 북한군 중 1명은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일주일간 러시아 측으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군인은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 도착 후해야

파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고 본인은 낙오되어 4~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붙잡혔다고도 털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공개했다.

국정원이 우크라이나 당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들의 심문 과정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AFP 등 외신들은 생포된 군인들이 현지에 파견된 한국 국정원의 통역 지원 하에 SBU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북한군을 생포함에 따라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한다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 측으로 송환 대상이 된다. 러시아와 북한 모두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들은 '불법 전투원' 등으로 간주돼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연합뉴스

김영록 지사, 가수 나훈아에 "양비론 말할 때냐"

나 공연서 "왼쪽 나는 잘했다" 발언에 "좌우 아닌 시대 정의 바로세워야" 김원이 "살던대로 사시라" 직격



김영록 지사

김원이 의원

고별 공연에서 12·3 불법 계엄 사태 본질을 흐리는 듯한 발언을 한 가수 나훈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영록(사진) 전남지사는 지난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비론이 아닌 시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수 나훈아 하면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가수다. 나 또한 그의 팬이다. 한데 요즘 탄핵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더라도 심히 우려스럽다"고 썼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고별 공연 중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 못했다고 생리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왼팔을 가리키며 "나는 잘했다"고 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와관련, "평상시 같으면 좌우 싸우지 말고 통합 정신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백번 옳다. 그러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하마터면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처럼 모든 것을 통제받는 독재시절로 되돌아갈 뻔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좌우의 문제가 아닌, 국가 기본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우는 대단히 중대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우'도 문제지만 '좌' 보고 '나는 잘했다' 이런 양비론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정의는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하나"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반국가적 행태에 대해 국가수사기관들이 하루빨리 윤석열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반드시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을 물어 정의를 바로 세울 일이지 양비론으로 몰타기하고 사회혼란을 부추길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5·18 민중항쟁 당시의 희생으로 이 땅에 다시는 어떠한 형태의 독재도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 믿었는데, 독재를 선포하고 정의가 실종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비통한 마음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김원이(민주·포목) 의원이 "한평생 그 많은 사

람받으면서 세상일에 눈감고 입닫고 살았으면 그때도 입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말았지"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과 내란이 무슨 일이고, 왜 벌어졌는지, 누구 때문이고,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신인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나 그런 말을 하는지. 진심 묻고 싶다"면서 "그냥 살던대로 사세요. 당신 좋아했던 팬들 마음 무너뜨리지 말고"라는 글을 올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요한목시록에 빗대 비판한 김용태 전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도 나훈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수는 노래만 잘 부르면 되고 배우는 연기만 잘 하면 되고 신부는 미사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보천지들"이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 없이 노래와 연기와 미사가 무슨 소용인가"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김 신부는 요한목시록에 빗대 용산을 사악한 용이 자리 잡은 곳으로, 비상계엄을 '지'발광'으로 비유한 시국 강령으로 주목을 받았다.

강우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나훈아를 겨냥하지 않았지만 "지금 가장 위험하고 독한 게 바로 중립성"이라며 "살인 미수범 앞에서 왜 살인 용감자극했다며 같은 눈 편드는 칼보다 더 독한 헛바닥 그립 다물라"고 썼다. /김지우 기자 dok2000@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중 앙

뭣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뭣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금,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4년 12월 09일 주주 전원 서면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결의 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월 13일
주식회사 에스에이치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575, 1층 3호
청산인 김익찬

자본감소공고

(채권자 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5년 01월 10일 주주총회를 감음하는 총주주 서면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의 금310,000,000원을 금1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1주의 금액10,000원 주식 30,000주에 대하여 임의 유상소각하기로 하여 발행주식 총수 31,000주를 1,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 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3일
주식회사 자수건설(200111-0610513)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108, 1층
대표이사 이예진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